

礪山宋氏家乘

序

往丁巳秉浩參大同譜役役既訖卷帙頗浩大矣爲覽之易藏之便別  
成一家乘布于吾承旨公諱成一派各家盖有見於時勢者矣嗚呼今距丁  
巳爲三十有九載猶有審勢者如此况此世變不啻丁巳之比者乎其  
間生卒嫁娶寔繁譜不可不修顧東西搶攘南北分裂大同之役果難  
矣無寧續修家乘以備不虞不有愈於己乎噫今人之爲生類多梗漂  
蓬轉而甚或有身家烏有先倘天定亂己欲追尋先系族黨不有記述  
何以證信乎此今日家乘譜之不容不汲汲修正也凡我後孫深體譜  
義更惟同得一氣之美質不受世漓而力於自修求所以益耀於前徽  
也則報本之誠敦睦之誼自在於其中矣吾家門祚之隆將引於無窮

矣秉浩少而失學白首無成自悼其忝負先烈而有愧于心者大矣敢  
書此以勉後來者

乙未清和節

后孫

秉浩

謹識

## 여산송씨가승

서

지난정사년에 秉浩 대동보사에 참여하여 일을 끝내니 권수가 너무 많은지라 보는자가 쉽  
게 보고 모시기 간편케 하기위하여 별도로 우리승지공 諱成一과의 가승을 편하여  
각집의 전통을 보게함에 있노라 슬프다 이제 지난정사년이 삼십구년이된 이때 일  
가에게 대행장을 알고자 함에 어려움이 있는지라 하물며 세상의 변천이 끊임없  
는 이때 정사년수보시의 어려움에 비하리요 그간 생사가 취가번거하여 족보를 불  
가불 편찬해야 하는데 동서는 창양하고 남북은 분열되어 대동보사는 과연 어려운지라  
차라리 가승을 편하여 염여됨에 대비함이 나으리라 슬프다 사람의 삶이 유다하여 여

기 저기 전전하고 가정을 가진 자 없는 자 후시 난세에 선영을 알고 일가를 찾고 저 할 때  
기록이 없으면 어이 찾으리오 오늘날 가승을 편치 않으면 아니 되나니 우리 후손은 깊이  
보의를 체받아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한핏줄의 기질로써 힘써 구하는바 스스로 자수하  
여 앞길의 빛을 비추일 때 보분하는 정성과 돈목하는 의를 스스로 그중에서 얻게 되  
나니 우리가문의 응성과 발전은 기리기리 무궁한 장래를 얻으리라 秉浩 젊어 못  
배우고 늙어 이루지 못함을 스스로 슬퍼하고 선영에 죄스러운 마음 자못 크노라 감  
히 이를 써서 후손의 도움이 되면 하노라

을미 청화절

후손 秉浩 씀

### 舊序

我貫礪之宋起祖於麗之中葉爲邦之巨闕在龍蛇以前譜不能守之  
於兵燹其後三百年間作者迭興或合或分而今日之復歸於大同誠  
吾姓之大幸噫同源分流人易世遠至於塗人則油然興感固人情之

常也而况又滄桑變遷人不姓其姓之日乎役始於乙卯春卒於丁巳冬費帑凡千餘日編爲三十有一數可萬布置八域姓中各家顧不重且大乎余之譎陋得相厥役亦己幸矣夫如是則不必事刻乎家乘然編帙浩穰運閱未易自始祖直蒙至我九世祖承旨公自承旨公序次而下之編爲一沓而刊之歐陽氏之直叙己派蘇氏之傍及近親盖亦兼之矣嗚呼人不知姓之所自而昧於昭穆之序則斯貿貿矣後昆之覽此者有能會此意否耶

丁巳良月望

后孫 秉浩 謹識

附大同譜行列圖

自二十九世以下

- |    |    |
|----|----|
| ○鉉 | ○錫 |
| ○沂 | ○河 |
| ○杓 | ○根 |
| ○瑩 | ○炳 |
| ○均 | ○坤 |
| ○欽 | ○鎬 |
| ○洙 | ○淳 |
| ○相 | ○植 |
| ○烈 | ○煥 |
| ○教 | ○圭 |

# 구서

우리여산송은 고령중엽에 시작되어 나라의 거벌은 되었으나 진사년이 전에는 병화로 인하여 죽보름가지지 못하고 그후 삼백년간 작자질롱하여 혹은합하고 혹은나뉘어 오늘날 대동에 다시 돌아오게 되니 우리성씨의 다행이라 하겠다 슬프다 한핏줄에서 태어나 나뉘게되고 사람은 바뀌고 세월은 흘러 도인에 이르게 되면 누구나 감정을 갖게됨이 인정의 상사인듯 하물며 강산이 변하고 문명이 발달한 세상인데 인간으로써 내성을 찾지 않을날이 있으리야 보역을 을묘봄에 시작하여 정사년겨울에 끝나게됨에 천여일을 걸려 삼십여편을 만들어 팔도에사는 각가에주니 중차대한일이 아니라 나의 전루로 보여 참여함은 또한 행이라 하겠다 무릇일이 여시하면 가승을 편할 필요는 없다하나 질이크고 운열이 어려워 시조로부터 구세조 승지공에 이르기까지를 직몽하고 승지공으로부터 내려와 일편의 가승을 만들어 구양씨의 자파를 펴고 소씨의백과 근치에 미치게하니 또한 결합바결한지라 오호라 사람이 자기성을 모르고 소목에 어두우면 되겠는가 후손이 이를보는자 능히 이뜻을 알아 주리라

정사 양월망 후손 秉浩 씀

礪山宋氏家乘

始祖

宋惟翊

一名攸益或云有翼  
高麗進士追封銀青光祿大夫樞密院府使○一男  
墓全羅道礪山府東十里許天壺山下文殊洞西北中峰虎谷南今稱壺月里寅坐丙午得戌破每年冬至祭焉  
俗號其地為漏項流水穿透山腰而出故名  
世宗十八年以元敬王后閔氏外鄉縣陞為郡  
肅宗二十四年追復端宗位以定順王后姓鄉陞為府 下批曰朝家莫非此山所外裔賜環七里  
萬曆十四年丙戌十五世孫巡撫御使言慎立表石

二世

子淑文

官政堂文學追封銀青光祿大夫樞密院事戶部尚書○一男  
貞烈公誌曰世為礪良縣戶長至公始仕于朝  
墓失傳而丁巳譜邦英後孫私世系云墓在考墓岡始祖墓下果有一塚而不知為某墳故姑記之以後焉

三世

子希植

古名南春一云南椿  
官三宰追封金紫光祿大夫知文下省事判戶部事  
墓京畿道開城郡西面風流洞西坐舊失傳  
憲宗己酉後孫寬玉因土人傳說探得誌石改莎築以十月十三日祭焉  
國大夫夫人黃山徐氏父文林郎尉衛寺主簿同正茂○一男

四世

子松禮

字立仁  
高麗熙宗三年宋寧宗開禧三年丁卯生  
官推誠翼載輔理同德佐名功臣匡靖大夫壁上三韓三重大匡門下侍中判典理司事上將軍致仕礪良府院君食邑一千戶食實封三百戶元宗乙亥致仕  
忠烈王十五年元世祖至元二十六年己丑正月二十日卒于松都三峴里壽八十三諡貞烈公墓京畿長湍府西六里臨江廢縣大谷山今稱洪陵山庚坐外裔李敵葬其親堀地得公誌文吳漢鄉所製云內勁外溫恬淡有節吏能武略踏險全德誅逆臣崔暄林衍子惟茂事載三綱行實宋

五世

子琰

官正憲大夫軍簿判書舊譜云班主○後孫廷耆私世系云安社功臣同平章事郎山府院君  
諡文肅公  
配辛州奇氏父郎將洪顯祖太師允肅曾祖太師守全外祖判司宰事長興任景恂或云尙  
高麗元宗公主五男二女

六世

子暉

官匡靖元尹  
配清州韓氏四男五女

子詳

官贊成一男  
三男一女

子淵

官判事  
五女

子璘  
官承旨  
四男三女  
官知中事國子監大

子玠

官推誠輔理贊化安社功臣匡靖大夫  
高麗高宗二十六年宋理宗嘉熙三年己亥生

子璠

官承旨  
四男三女  
官知中事國子監大